무리한 기소에…형사보상 청구 급증

무죄판결시 국가 보상…시국사건 잇단 재심 등 지난해 509억 지급

노희용 전 동구청장 4800만원 보상…검찰, 피의자 기소 신중해야

#1. 지난해 11월27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고 직위를 상실한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에게 최근 광주고법은 형사보상금 4865만76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벌금형으로 직위는 상실됐지만,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뇌물이 최종심에서 무죄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1심 판결에 따라 구금된 218일간의 보상금이다.

#2. 1970년대 유신정권 시절 '청우회'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2년6월과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부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최근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법은 이 전 고문에게 2억1579만92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 2010년 10월28일 구 도로법의 양벌규정 조항이 위헌 결정됐다. 이 도로법 위반 사건으로 벌과금을 냈거나 노역장에 유치됐던 사람은 재심을 청구한 뒤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형사보상은 죄 없는 선량한 국민이 죄인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경우 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크게 ▲구속사건 무죄 피고인 보상 ▲재심 무죄 피고인 보상 ▲피의자 보상 ▲무죄 판결비용 보상 등 네 가지다.

지난해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509억원에 달했다. 전년(852억원)보다 40.2% 줄었지만 최근 5년을 놓고 보면 큰 액수다.

2000년대 20억~60억원을 기록하다가 2009년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어섰다. 2011년 221억원, 2012년 521억원, 2013년 546억원, 2014년 852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70~80년대 시국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들이 2008년 이후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 규모가 커졌다. 또 2010년 도로법 위반에 따른 벌과금 규정이 위헌 결정되면서, 도로법 위반으로 벌금을 냈던 차주들의 보상금 청구도 줄을 잇고 있다.

물론 보상금 지급기준도 높아졌다. 1988년 당시 상한이 1일 1만5000원이던 것이, 1992년 최저임금액의 5배로 바뀐 것이다.

보상금은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 청구인의 직업 및 생활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해 정한다.

이에 따라 노 전 청장의 보상금은 1일 상한액(22만3200원)에 구금일수(218일)를 곱해 4865만7600원으로 정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사보상금 급증에 대해 특수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의 무조건적인 기소가 지양돼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의 한 법조인은 "형사보상금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기소나 법원의 판단이 적정했는지 판단기준이 된다"며 "검찰은 피의자 기소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봄 꽃잔치 속 웃음꽃 만개

28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청 앞 광장을 찾은 여성들이 알록달록 피어난 꽃들을 감상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북구청 광장에서 29일부터 4월7일까지 계속되는 '봄꽃잔치'에는 미니 팬지, 데이지, 튤립 등 60만 송이의 봄꽃이 선보인다. /김진수기자 jeans@

주월초, 이번엔 '교실 천장 누수'

재개교 한달…부실공사 지적

광주 주월초등학교 교장실과 행정실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대대적 리모델링을 거쳐 재개교한 뒤 얼마 안돼 발생한 '교실 천장 누수'(漏水)의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점에서 애초 공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주월초등학교 소방펌프와 배관 연결 부위로 물이 새면서 학교 1층 복도, 교장실, 교무실 등이 침수 피해를 봤다. 침수로 한때 전기와 인터넷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교육청은 지난 25일 학교 리모델링을 맡았던 건설업체가 교실 천장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해 소화전을 작동시켰다가 제대로 잠그지 않고 철수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했다. 학교측은 개교 이후 얼마 안돼 건물 3층 4학년 교실 천장에서 물이 새자〈사진〉 건설업체측에 보수를 요청했었다.

교육청과 감리단측은 건설업체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소화전 물을 끌어다 썼다가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 안팎에서는 개교 일정을 맞추기 위해 쫓기듯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면서 144억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고도 재개교한 지 한 달도 못돼 교실 천장에서 물이 샌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 교육청 등은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교육감협 "누리예산 의무편성법 제정 반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8일 교육감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제정과 관련,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여당의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 추진은 누리과정 재원 마련도 없이 보통교부금 일부를 분리해 설치하는 것으로 모든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지적한 뒤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없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회계법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용도를 특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협의회는 "정부는 잘못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상태에 빠뜨린 1차적 책임을 지고 교부율 인상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5·18기념재단, 돌탑 쌓기 참여 시민 518명 초대

5·18 기념재단은 다음달 23일 망월동 구묘역에서 열리는 5·18 돌탑 쌓기 2단계 행사에 참여할 시민 518명을 초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옛 전남도청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벽돌 259장과 직접 가져온 돌 259개를 모아 총 518개의 돌로 높이 5.18m의 탑을 완성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기념재단 홈페이지(http://518mf.org/htm/invitation.htm)를 통해 할 수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6:24	달뜸	23:57
해짐	18:51	달짐	09:48

구름 낀 하늘

가끔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점차 흐려지겠다.

◇지역별 날씨 (℃)

광 주	차차 흐려짐	6/18	보 성	차차 흐려짐	1/16
목 포	차차 흐려짐	8/15	순 천	차차 흐려짐	5/17
여 수	차차 흐려짐	8/14	영 광	차차 흐려짐	6/17
나 주	차차 흐려짐	4/19	진 도	차차 흐려짐	6/16
완 도	차차 흐려짐	8/17	전 주	차차 흐려짐	7/18
구 례	차차 흐려짐	2/17	군 산	차차 흐려짐	7/16
강 진	차차 흐려짐	4/17	남 원	차차 흐려짐	4/18
해 남	차차 흐려짐	5/17	흑 산 도	차차 흐려짐	7/15
장 성	차차 흐려짐	3/1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먼바다	남~남서	1.5~2.5	남~남서	1.0~2.5
남해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0.5~1.5
	먼바다(동)	남~남서	1.0~2.0	남~남서	1.0~2.5
	먼바다(서)	남서~서	1.0~2.0	남서~서	1.5~2.5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보통
피부질환	낮음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5:27	10:38
	17:30	22:45
여수	00:02	06:07
	12:10	18:07

◇주간 날씨

30(수)	31(목)	4/1(금)	2(토)	3(일)	4(월)	5(화)
9/21	9/17	11/18	8/19	7/18	7/17	8/18